

발해무덤외부시설을 통하여 본 고구려무덤외부 시설과의 계승관계

백 용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발해는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옛 고구려땅에 세워진 강력한 주권국가로서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북방 여러 나라들의 거침되는 침입을 막고 나라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김정일전집》 제2권 163~164페이지)

발해는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옛 고구려땅에 세워진 우리 민족의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고구려문화를 계승하여 우수한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고구려문화를 계승발전시킨 발해문화에서 무덤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발해무덤이 고구려무덤을 계승하였다는 데 대하여서는 무덤의 류형과 내부구조형식, 매장풍습, 무덤벽화, 무덤에서 드러난 각종 유물 등을 통하여 많이 논의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지난 기간 부분적으로 밝혀진 발해무덤외부시설들을 류형별로 서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고구려무덤외부시설과의 계승관계를 보다 명백히 밝히려고 한다.

지금까지 무덤외부시설이 알려진 발해의 대표적무덤들로는 삼령둔 1호무덤과 정효공주무덤, 하남둔무덤, 룡정산무덤떼와 룡두산무덤떼, 동청무덤떼, 북대무덤떼의 일부 무덤들을 들 수 있다.

이 무덤들에서는 여러가지 형식의 무덤외부시설들이 알려졌다.

발해의 무덤외부시설로는 무엇보다 먼저 무덤무지측면에 쌓은 돌보강시설을 들 수 있다.

이 보강시설은 무덤무지를 여러개의 기단으로 쌓아올리거나 그 밑둘레에 많은 돌

을 쌓아 무덤무지가 류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든 무덤무지보호시설의 하나이다.

이러한 형식의 무덤무지보호시설이 알려진 대표적인 무덤은 동청8호돌각담무덤과 동청3호돌각담무덤이다.

동청8호돌각담무덤은 중국 길림성 안도현 동청마을에서 동북쪽으로 약 1km가량 떨어진 나지막한 산언덕의 남쪽비탈면에 위치하고 있다.

무덤무지의 형태는 3단의 기단으로 이루어진 모가 죽은 방추형이며 크기는 동서길이 8m, 남북길이 7.7m, 높이 1m 정도이다.

첫번째단(맨 밑단)은 먼저 땅을 고른 다음 그 위에 모가 난 화강암으로 남북길이 6.8m, 동서너비 5.7m되게 장방형기단을 축조하고 그 안쪽에 막돌과 강돌을 채워넣어 만들었다. 동쪽과 서쪽단은 두돌기로 쌓았고 남쪽과 북쪽단은 세돌기로 쌓았는데 네면의 높이는 모두 0.4m 정도이다.

두번째단은 첫번째단에서 0.4~0.6m정도 안으로 좁혀 쌓아올렸는데 여기에 주검칸이 설치되어 있다. 두번째단의 크기는 남북길이 4.6m, 동서너비 4.4m, 높이 0.2~0.25m 정도이다.

세번째단은 현재 심히 파괴되어 있으나 깨어진 막돌이나 강돌을 여러번 덮어 옷부분을 마무리하였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결국 무덤의 외부형태는 꼭대기를 자른 계단식방추형이다.

이 무덤의 맨 밑단의 주위에는 많은 보강돌이 쌓여 있었다.

동청3호돌각담무덤은 8호무덤에서 동북쪽으로 10여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무덤은 평면생김새가 장방형인 기단돌각담무덤이며 크기는 남북길이 6m, 동서

너비 4m이다.

기단은 크고작은 돌로 축조되었는데 동쪽벽과 서쪽벽은 3돌기, 북쪽벽은 4돌기로 쌓고 그 안쪽에는 작은 막돌들을 채워넣었다. 남쪽편에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자연지대를 리용하여 2단으로 기단을 쌓았는데 밑단은 판석과 길다란 돌을 가지고 가쁜하게 한벌 쌓았고 웃단은 밑단에서 안쪽으로 약 1m가량 들여다 쌓았다. 매개 기단의 높이는 20cm정도이다.

동청8호돌각담무덤과 3호돌각담무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무덤무지를 여러개의 기단으로 쌓아올리거나 그 맨 밑단의 둘레에 일정한 높이로 보강돌을 둘러쌓는 형식은 무덤무지의 류실을 막고 그것을 견고하게 잘 보존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것으로서 전형적인 고구려양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무덤을 축조하면서 무덤무지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류형의 보호시설들을 갖추어놓았다.

특히 운평리 4지구 3호무덤과 풍청리33호무덤을 비롯한 기단돌각담무덤들에서는 기단밖에 큰 돌들을 박아넣고 3~5겹으로 돌을 쌓아 기단을 만들었으며 장군무덤, 태왕무덤, 칠성산871호무덤과 같은 큰 무덤들에서는 여러단으로 계단을 쌓고 그 밑둘레에 버팀돌들을 둘러놓아 무덤무지의 류실을 막았다. 그리고 경신리1호무덤과 토포리큰무덤을 비롯한 돌칸흙무덤들에서도 무덤무지밑둘레에 네모지게 돌기단을 쌓아 무덤무지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에서는 무덤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더 잘 보존하기 위하여 무덤무지밑둘레에 여러개의 기단을 쌓거나 무덤무지전체를 계단모양으로 축조하고 그 둘레에 버팀돌과 같은 무덤무지보호시설들을 갖추어놓았다.

동청8호돌각담무덤과 3호돌각담무덤을

비롯하여 발해의 무덤들에서 이와 같은 고구려양식의 무덤무지보호시설이 알려진 사실은 발해무덤외부시설과 고구려무덤외부시설과의 계승관계를 잘 말해주고있다.

발해의 무덤외부시설로는 다음으로 무덤우시설을 들수 있다.

무덤우시설에는 기와를 씌운 일종의 건축시설물과 종교적인 탑시설이 있다.

건축시설물이 알려진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하남둔무덤, 삼령둔1호무덤, 대목단무덤을 들수 있다.

하남둔무덤은 중국 길림성 화룡시 하남둔에 위치하고있는 하남둔옛성안에 자리잡고있다. 무덤은 하나의 무덤무지안에 동서로 2기의 장방형벽돌무덤이 나란히 놓여있는 부부합장무덤이다. 무덤칸은 지하에 놓여있다.

무덤칸의 웃부분에는 흙으로 쌓은 동서약 28m, 남북 약 20m, 높이 약 2m크기의 무덤무지가 있었으며 그우에 30여개의 큰 기초돌이 동서방향으로 정연하게 줄지어 놓여있었다.

현재 무덤의 웃부분은 많이 파괴되어있다. 이 무덤을 정리할 때 무덤앞 동남쪽으로 약 2m 떨어진 곳에 기초돌 한개가 남아있었고 땅우에는 기와조각들이 많이 널려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무덤우에 기와를 씌운 어떤 건물이 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삼령둔1호무덤은 중국 흑룡강성 녕안시 삼령둔마을에 위치하고있다.

이 무덤은 주검칸과 안길로 이루어진 반지하식의 외칸무덤이다. 무덤무지는 흙으로 덮고 잔디를 입혔다. 무덤무지우에서는 기둥밑받치개를 돌친 주춧돌과 주춧자리돌들이 알려졌다. 주춧돌은 동, 서로 4개씩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이 주변에서는 기와조각들도 알려졌다. 주춧돌과 기와조각으로보아 이 무덤의 웃부분에는 기와를 씌운 건물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대목단무덤은 중국의 목단강류역 대목단에서 서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서산 아래에 위치하고있다.

무덤칸의 구조형식은 삼령둔1호무덤과 비슷하다. 무덤무지는 언덕과도 같이 규모가 매우 큰것이 특징이다. 무덤무지부근에서 발해시기의 많은 기와조각들과 벽돌조각들 그리고 현무암의 석재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삼령둔1호무덤과 마찬가지로 무덤무지위에 어떤 건물을 지었다는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하남둔무덤, 삼령둔1호무덤, 대목단무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무덤무지위에 기와를 씌운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풍습은 고구려시기의 여러 무덤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는 현상이다.

고구려의 장군무덤의 무덤무지웃부분에는 중심부가 1.3m정도 올라오게 동그스름히 강돌과 석회 및 흙을 섞어서 다져놓은 시설이 있으며 그 주위의 동, 서, 남, 북 네면에는 구멍들이 나란히 배열되어있다. 이 구멍들은 직경이 10cm, 깊이가 15cm인데 무덤무지 맨 웃단의 서쪽측면에 17개, 북쪽측면에 18개, 동쪽측면에 21개, 남쪽측면에 2개가 남아있다.

무덤무지웃부분에 있는 이 구멍들은 무덤무지아래에서 알려진 쇠사슬고리와 결부시켜볼 때 무덤꼭대기에 원래 일정한 건축물이 있었고 그것을 보호하고 장식하는 쇠사슬고리란간이 빙 둘러져있었다는것을 추정할수 있게 한다.

고구려무덤들인 장군무덤, 태왕무덤, 립강무덤, 서대무덤, 천추무덤 등에서는 무덤무지위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기와들과 벽돌들도 알려지고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무덤의 무덤무지 웃부분과 그 주변에서 알려진 기와와 벽돌, 쇠사슬고리 등은 고구려무덤의 외부시설로서 무덤무지 웃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들이 존재하고있음을 보여준다.

발해의 하남둔무덤, 삼령둔1호무덤, 대목단무덤도 그 구조와 외형 및 출토유물로 보아 고구려의 여러 무덤들과 마찬가지로 무덤의 꼭대기에 어떤 시설물이 있었던것으로 볼수 있는것이다.

발해의 무덤가운데는 정효공주무덤과 마적달무덤과 같이 무덤우시설로서 벽돌로 만든 탑을 세워놓은 특징적인 무덤들도 있다. 현재 이 무덤들의 무덤무지 웃부분에는 탑터만이 남아있는데 정효공주무덤의것이 비교적 뚜렷하다.

정효공주무덤은 중국 길림성 화룡시 룡수향 룡해촌 룡두산에 자리잡고있다. 이 무덤은 주검칸과 무덤길로 이루어진 외칸의 벽돌무덤이다. 무덤칸은 지하에 놓여있다.

무덤무지위에는 검은 벽돌로 쌓은 정방형의 탑터가 있다. 탑기초의 크기는 남북길이 5.65m, 동서너비 5.5m이다. 탑기초는 무덤칸의 천정우를 고르롭게 한 다음 장방형의 벽돌로 번두리를 따라 기초벽을 둘러쌓고 그안에 진흙과 돌을 섞어 다지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기초벽의 두께는 1.5m이다. 이 탑터는 792년에 무덤을 만들면서 함께 만든것이다.

정효공주무덤을 자세히 따져보면 구체적인 요소처리에서 고구려적인것이 많다. 이미 밝혀졌지만 이 무덤의 무덤칸의 구성형식은 고구려무덤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이며 벽화의 내용과 형식 등도 고구려무덤벽화들과 공통하다. 좀 색채가 다른것이 있다면 무덤의 기본축조재료가 벽돌인것이다. 그러나 안칸천정을 고임식으로 하고 그위에 넓은 판돌을 덮은것과 무덤안길에 커다란 판돌로 문을 만들어 달아놓은것은 고구려무덤들에서 볼수 있는것이며 발해에로 이어진것이다.

돌과 벽돌을 무덤축조에 섞어쓴례는 고구려의 평양역전벽화무덤이나 대성산기슭의 무덤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정효공주무덤위에 벽돌탑을 세운것도 고

구려나 발해에서 무덤무지우에 기와를 씌운 어떤 건축물을 짓는 풍습을 본딴것이라고 볼수 있다. 정효공주는 생전에 독실한 불교신자였기때문에 무덤우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 풍습을 따르면서도 그 건축물의 류형을 당시 류행하던 불탑으로 하였다고 볼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정효공주 무덤이 비록 일부 다른 색채를 띠고있기는 하나 고구려무덤의 영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발해의 무덤외부시설로는 또한 담장과 같은 무덤무지주변시설들을 들수 있다.

담장이 알려진 대표적인 무덤은 룡호무덤, 하남둔무덤, 삼령둔1호무덤이다.

룡호무덤은 중국 길림성 화룡시 서고성사에서 동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룡두산의 북쪽산비탈면에 자리잡고있다.

주검칸과 무덤길로 이루어진 외칸무덤으로서 무덤칸은 지하에 놓여있다.

무덤무지는 많이 흘러내려 평토로 되어 있었다. 무덤의 둘레에는 길이 30m, 밑너비 3m, 남은 높이 0.5m인 흙담이 둘러져 있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무덤우시설이 알려진 하남둔무덤과 삼령둔1호무덤에서도 무덤무지주변시설의 하나인 담장이 알려졌다.

하남둔무덤주위에는 길이 500m 정도로 방형의 담장이 둘러져있고 남쪽담장중심부분에는 대문자리가 있다.

삼령둔1호무덤의 주변에도 흙담을 네모나게 쌓아 만든 담장이 있는데 그 크기는 동서길이 123m, 남북길이 121m이며 남은 높이는 약 1m이다. 담장으로 둘러막은 무덤구역안에는 옥색유약을 바른 기와를 비

롯한 많은 기와조각들이 널려있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곳에 여러채의 화려한 건물이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삼령둔1호무덤은 지금까지 알려진 발해시기의 무덤으로서는 그 규모가 크고 담장으로 둘러친 무덤구역시설과 화려한 건물을 가진 점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왕릉급의 무덤이다.

발해무덤들에서 알려진 이와 같은 담장들은 이미 고구려의 태왕무덤과 천추무덤, 서대무덤을 비롯한 여러 왕릉급무덤들에서 알려졌다.

고구려무덤의 담장들은 무덤으로부터 동, 서, 남, 북 방향으로 대략 30~100m정도 떨어진 곳들에 위치하고있다. 담장은 자갈돌로 쌓거나 돌과 흙을 섞어서 쌓았다. 담장의 여러곳에서는 나무기둥구멍과 기와조각들을 비롯하여 문시설들도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발해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왕릉급의 무덤들에 담장을 쌓아 무덤구역을 형성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이처럼 돌각담무덤과 돌칸흙무덤은 물론 탑을 세운 벽돌무덤에 이르기까지 발해의 모든 무덤외부시설들은 고구려의것을 그대로 계승하였거나 그것을 본따서 일부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것으로서 고구려와 발해사이의 계승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발해무덤외부시설들은 당시 동방에 널리 이름을 떨친 《해동성국》의 문화가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하여 새로운 역사적조건에 맞게 발전시킨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적인 문화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